



특별반



리 립 수

누구도 알지 못하였다.

집에서는 삼돌이가 날마다 학교에 가서 삼녀처럼 공부하는줄로 알 것이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삼돌이가 몸이 좀 말썽해서 요 며칠째 결석하는줄로만 알 것이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삼녀가 언제까지 지켜주겠는지...

한반에서 공부하는 삼녀는 출석을 부를 때마다 오빠는 머리가 좀 아파서 나오지 못한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일이 드러나는 날에는 아버지한테 된 봉변을 당할 것이다. 그는 요먼저 아버지한테 괜히 한마디 비쳤다가 이마에서 뿔이 돋아나게 욱을 먹은 일이 있었다.

《뭘, 학교를 그만두겠다구? 한생을 까막눈으로 살아온 늙은 나도 해방을 맞아 눈을 좀 떠보겠다고 밤마다 성인학교에 다닌다...》

그러며 아버지는 삼돌이가 매끈하게 손질하고 있는 호미자루를 와락 빼앗아 헛간쪽에 집어던졌다.

《호미에서 글이 나올 것 같냐? 네가 농사를 안 지어도 이제는 굶을 녀려는 없다.

정 그러겠으면 아예 그 꼬락서니가 보이지 않게 사라지고 말거라.》

아버지는 삼돌이한테 눈을 흘겨붙이고 서둘러 소를 끌고 밭으로 나갔다.

그날은 해방을 맞아 첫 밭갈이를 하고 감자파종을 하는 날이어서 아버지는 닭이 우는 새벽부터 소여물을 끓이며 부산을 피웠다.

아버지가 오늘도 학교에 가지 않은 줄만 알면 얼마나 야단을 칠 것인가.

아버지가 사립문을 나섰을 때 토방에서 감자를 고르고 있던 어머니가 머리를 쳐들었다.

《얘들아, 너희들이 요새 이상하다. 왜 그렇게 시무룩해 다니니?... 선생님한테 말을 듣지 않았니?》

삼돌이는 삼녀쪽을 힐끗 곁눈질해보고는 《안요.》 하며 머리를 흔들었다.

《이제 감자나 다 심어놓고 학교에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자, 어서 가거라. 학교에 늦을라.》

삼돌이는 속이 짙끔해서 도망치듯 어머니 앞을 빠져나갔다. 삼녀가 그뒤로 타박타박 걸어갔다. 오빠가 오늘은 생각을 달리 먹고 학교에 갔으면 얼마나 좋을가. 삼녀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삼돌이는 학교가 멀리 바라 보이는 개울가에 이르러서는 또 어제처럼 잔디밭에 주저앉고 말았다.

《오빠 안 갈래?》

삼녀는 금시 울상이 되어 물었다.

삼돌이는 뒤로 몸을 젖히며 한마디 던졌다.

《가서 어제처럼 말하면 돼.》

《몰라몰라. 내가 뭐 그런 심부름이나 드는 사람이야?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놀려주는지 알아? 이제 학교에 소문이 짜하게 돌거야.》

그래도 삼돌이는 들은척도 않고 팔을 베고

잔디밭에 털썩 드러누웠다.

발을 동동 구르며 한참이나 웅알거리던 삼녀는 부랴부랴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오빠결을 떠났다. 행길쪽에서 학교가는 동무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던것이다.

드러누운채 동생의 뒤모습을 바라보는 삼돌이는 마음이 허전해졌다.

(에잇, 차라리 학교 없는데 가있었으면 좋겠다.)

그는 야속한 마음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학교, 학교... 하면서 못 견디게 꾸중을 한다. 해방전에는 학교소리를 꺼내기만 하면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런 헛궁리를 하지 말고 농사일이나 착실히 손에 익히라고 하더니 해방이 되고 몇달 안 있어 새 학교가 덩그렇게 솟아오르면서 모든것이 달라지고말았다.

삼돌이는 공연히 속이 불뚝해서 별판쪽을 바라보았다. 논머리, 밭머리마다 그 땅의 새 주인을 알리는 흰 나무표말들이 해빛을 받아 번쩍이고있다. 누렁소를 앞세우고 긴 회초리를 휘두르는 마을어른들도 보이고 그 사이사이로 머리수건을 쓴 마을어머니들의 불그스레한 얼굴들도 보였다.

모두가 바쁘게 돌아가고있었다.

오직 자기만이 일없이 빈둥거리는것만 같았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그는 돌을 하나 집어들어 저편 개울너머로 획 팔매질을 해서 던졌다.

(야, 내 마음을 왜 모두 이렇게 몰라줄까... 아버지두 어머니두 선생님두... 이 세상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한사람두 없어.)

그는 눈물이 글썽해졌다.

하지만 종다리는 기쁘다고 밭에서 몸을 솟구며 자꾸만자꾸만 하늘로 날아올랐다. 이제는 종다린지 모르게 눈에서 가물가물 사라져 보이지도 않았다. 그래도 우짖는 소리만은 방울을 귀에 대고 흔드는듯 쪼롱쪼롱 그냥 들렸다. 누구나 하늘을 쳐다보고야마

는 그 소리에조차 삼돌이는 눈 한번 들지 않고 개울물에 떠가는 나무잎처럼 생각만 하염없이 흘러보내며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삼돌이는 종내 기분이 가셔지지 않은대로 다시 어슬렁어슬렁 걸어 빈집으로 돌아오고말았다.

(이젠 할수없어. 외삼촌이나 찾아가자. 거기 가면 누구도 학교 가라고 성화를 먹이지 않겠지.)

읍에 사는 삼촌네 집에 가서 어느 자그마한 철공소에라도 들어가 망치질이나 해볼 생각이였다. 마음 편안하게 지낼수만 있다면 아무데라도 좋았다. 그는 책보를 풀어헤치고 학습장들을 모조리 책상맡에 밀어넣었다. 그런 다음 삶은 고구마 몇개와 새 짚신 한켠레, 갈아입을 옷 한벌을 책보에 싸서 조그마한 보통이를 만들었다. 그가 보통이를 끼고 사립문을 나서는데 저쪽 터밭에서 수탉이 구구거리며 이랑을 헤집어놓고 있었다.

《아니, 저것들이 강녕이씨를... 후- 후-》

그는 보통이를 울밑에 훔 집어던지고 뛰여가 닭을 몰기 시작했다.

헤집어진 밭에 강녕이씨가 여기저기 허영게 들추어져있었다.

어제 삼돌이가 몰래 땅을 뿌지고 이랑을 잡아놓은 밭이였다.

(에- 다 헤집어놓았구나.)

집을 떠나려던 생각은 가뭇없이 잊어버린듯 심다 남은 강녕이씨바가지를 들고나온 삼돌이는 이랑을 다시 잘 고누고 씨를 묻어나갔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지 흐느껴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삼돌이가 돌아다보니 삼녀가 팔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걸어오고있었다.

삼돌이는 눈이 둥그래서 누이동생을 바라보았다. 뻘한 일이다. 선생님이 보내서 자기를 데리러 오는 모양이였다.

삼돌이는 벌써 골치가 아픈듯 이마살을

찡그리었다.

《에잇 년 정말, 내가 아까 뭐라고 했니, 가서 어제처럼 말하라고 했는데...》

《싫어, 오빠 선생님을 자꾸 속이는데 부끄럽지도 않니?》

삼녀가 얼굴이 새빨개서 소리쳤다.

선생님한테 거짓말할 일이 걱정되어 집으로 돌아오고만 삼녀였다.

삼녀는 뺨이 나는대로 오빠의 손에서 다짜고짜 호미부터 빼앗으려 들었다.

《삼녀야, 너 자꾸 이러지 말아. 닭이 강냉이씨를 다 파먹었어.》

삼돌이는 호미자루를 놓지 않으며 동생을 구슬렸다.

《누가 오빠보고 강냉이를 심으라고 했니? 집에서 두더지처럼...》

삼녀는 콧수염을 씹고 돌아서더니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엉엉 울었다.

동생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삼돌이는 코를 찡긋하더니 가까이 다가가서 달래었다.

《삼녀야, 학교 늦으면 너까지 말을 듣지 않니? 어서 가, 응.》

《싫어, 난 싫어. 오빠가 안 가면 나도 인젠 학교를 그만두겠어.》

그러며 삼녀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애들아.》

삼돌이가 뒤를 돌아다보았다.

삼녀도 머리를 쳐들었다.

두 아이의 새까만 눈들이 대뜸 커다래졌다.

보위색양복에 가죽장화를 신으신 장군님께서 자애로운 웃음을 지으시고 자기들을 내려다보시지 않는가!

장군님의 옆에도 뒤에도 슬한 수원들이 주련이 섰는데 저만큼 떨어진 개울옆 길가에는 승용차들이 서있었다.

삼돌이는 호미자루를 손에 쥔채 장군님앞에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다. 그는 가슴이 세차게 뛰고 귀에서 웅 소리가 나는것 같아 장군님의 모습을 제대로 우러러볼수 없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삼돌이의 뒤에 오도카니 서있는 삼녀의 앞으로 가까이 다가서시었다.

채 닦지 못하여 아직도 맑은 눈물이 눈귀에 맺혀있는 삼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다심하게 물으시었다.

《오빠하고 무슨 일이 있었니?》

삼녀는 눈을 내리깔며 아무 말도 못하였다.

삼돌이는 자기의 《비밀》이 금시 다 드러날것만 같아 마음이 조마조마해났다.

장군님께서서는 삼녀만큼 키를 낮추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일없다. 어서 말해라, 일없어.》

삼녀는 살며시 눈을 들어 삼돌이의 눈치를 힐끔 살피었다.

그의 까만 속눈썹은 아직도 눈물에 축축히 젖어있었다.

속이 한줌만 해서 머리를 떨구고있는 삼돌이를 보는 순간 어쩐지 코허리가 찡하여 삼녀는 자기도 머리를 숙이며 얼굴을 붉히었다.

삼녀는 입술을 감쌀며 머뭇거리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오빠가 학교다니기 싫어해서 그렇니다.》

《왜?》

《부끄럽다구...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부끄럽다구? 학교에 다니는게 왜 부끄럽단 말이냐?》

《오빠는 열네살인데 지금 3학년입니다.》

《음, 열네살에 3학년이라... 여기에도 또 그런 애가 있구만.》

장군님께서서는 온 나라의 공장과 농촌마을 그리고 어촌마을을 현지도하실 때 삼녀의 오빠처럼 키가 꺾두룩해가지고 동생들의 무리에 끼워서 공부하러 다니는 아이들을 많이 보셨던것이다.

《오빠는 해방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1학년에 다니자니까 부끄러워한다고 교장선생님이 얼마전에 3학년으

로 올려봐주었습니다.

그런데 3학년공부가 힘들다고... 아이들이 놀려준다고... 오빠는... 학교에 다니기 싫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

《그래, 너는 지금 몇학년이냐?》

《저두 3학년입니다.》

《3학년? 오빠하구 한학년이로구나.》

삼녀는 책보자기를 만지작거리며 울먹해서 말씀을 드렸다.

《우리 집은 못살아서 오빠는 학교문앞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빠는 공부를 하고싶어 정말 애타했습니다. 하루는 지주아들 득만이보고 이름 석자라도 배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놈아이는 자기가 차던진 공을 주어야 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공을 가시풀속에 차던지고는 그걸 주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놈아이는 〈윤삼돌〉이라는 이름대신 〈하늘소〉라고 종이조각에 써주고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두 어머니두 그리고 오빠두 나두 너무 분해서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원통하여 나만이라도 그런 놀림을 받지 말라고 이듬해 간이학교에 넣어주었습니다. 오빠는 나이가 지났기때문에 학교에 들어 못하고 늘 꼴지게만 지고다녔습니다.》

삼녀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장군님께서서는 근엄한 안색으로 잠시 먼 하늘가를 바라보시였다.

꼴지게밑에서, 밭이랑에서 배우지 못하고 나이를 먹은 한 아이의 이야기에서 조신의 눈물겨운 지난날을 더듬으시듯 오래도록 말씀이 없으시였다.

이윽고 장군님께서서는 아픈 빛을 감추시며 삼돌이의 얼굴을 다정히 들여다보시였다.

《허, 그런데도 네가 호미자루를 다시 잡았던 말이지.》

장군님의 말씀에 이제야 자기가 지금까지 호미를 친채 서있다는것을 깨달은 삼돌이는 얼굴이 확 붉어지며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그는 호미를 슬그머니 등뒤로 가져다가 땅에 떨구었다.

《보오, 배움의 문은 열렸는데 이 애가 손에 친것은 연필이 아니라 호미요.》

삼녀는 살며시 다가와 호미를 쥐더니 뽀르르 집으로 달음박질쳐갔다.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뒤모습에 부드러운 시선을 보내시다가 천천히 집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집앞의 터밭머리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손을 허리에 올리신 장군님께서서는 터밭을 한참이나 굽어보시다가 《어떻소? 제법 어른숨씨갈구만!》하고 수원들을 돌아보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순간 삼돌이는 웅송그렸던 마음이 확 열려지는것 같아 별썬 따라웃었다.

삼돌이는 자기의 안타까운 마음을 장군님앞에 죄다 털어놓고싶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삼돌이의 어깨를 짚으시고 우선우선하신 빛으로 물으시였다.

《너 그렇게 공부하기 힘드냐?》

삼돌이는 가슴에서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라 무어라고 대답을 올릴수 없었다.

《학생이야 공부를 해야지. 이젠 수업종이 울릴 때가 됐는데 학교로 가야지. 어때?》

삼돌이가 주물거리며 대답을 못하고있는데 이때 집안에서 《오빠! 책보가 어디 있니?》 하는 삼녀의 소리가 들려왔다.

삼돌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제야 울밑에 던졌던 보통이생각이 났던 것이다. 그가 머뭇거리다가 거기로 다가가는데 사립문쪽으로 도로 달려나오던 삼녀가 보통이를 띄여보고 소리쳤다.

《아이, 저기 있구나!》

보따리를 집어든 삼녀가 다시 소리쳤다.

《이건 뭐야?》

삼녀는 쫓그리고앉아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다.

《그건... 아무것두 아니야!》

삼돌이가 그곳으로 달려갔을 때는 벌써 보통이숙이 헤쳐진 뒤였다.

《아니, 이게 뭐니?》

삼녀는 움쭉 일어나더니 눈이 울롱해서 오빠를 쳐다보았다.

삼돌이가 바빠서 찢찢매는데 장군님께서 수원들과 함께 어느새 가까이 오시여 헤쳐진 보통이를 굶어보시었다.

《그래, 네가 어디로 떠날 차비였구나!》

삼돌이는 발끝으로 땅을 허비적거리며 입안의 소리로 대답을 올렸다.

《저… 읍에 가서 철공소일을…》

《철공소라? 허허, 이 애가 로동계급이 되려고 하는구만. 로동계급! 어땡소, 동무들?》

장군님께서 몸을 뒤로 젖히며 크게 웃으시자 수원들도 유쾌하게 따라웃었다.

삼돌이는 머리를 떨군채 귀밑을 긁적거렸다. 가슴이 콩알만 해서 서있던 삼녀가 조그만 두손을 눈에 가져가며 외로 돌아섰다.

장군님께서는 두 애를 이윽히 굶어보다가 물으시었다.

《그래 너희 학교는 어디 있느냐?》

삼녀가 고개를 빠끔히 쳐들고 대답을 올렸다.

《우리 학교는 저 웃마을에 있습니다.》

삼녀가 발돋움을 하며 학교쪽을 손짓하여 드렸다.

장군님께서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시고 나서 말씀하셨다.

《음, 저쪽이라. 마침 잘되었구나. 동무들, 가던 길에 애들의 학교에 먼저 들려봅시다.》

삼돌이는 누이동생이 싸가지고 온 책보를 손에 들긴 했지만 삼녀처럼 선뜻 승용차 있는데로 달려갈수 없었다.

삼돌이는 차옆에 이르렀을 때 애원에 찬 눈으로 장군님을 우러르며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다.

《장군님, 저는 발갈줄도 압니다. 짚신을 삼을줄도 압니다. 장군님, 저를 발에서 그

냥 일하게 해주십시오.》

오빠의 말을 듣지도 못하고 먼저 차안에 들어가앉은 삼녀는 《오빠.》 하고 부르며 차창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손을 까딱해보였다.

삼돌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채 발을 엇바꿔디디며 장군님만 우러러보았다.

무릎이 쭉 나온 베바지에는 몇군데 흙이 묻었고 짚신은 어른의 신발처럼 컸다.

물기가 어린 삼돌이의 눈을 이윽히 들여다보시던 장군님께서 수원들을 돌아보시었다.

《보오, 왜놈들이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얼마나 아픈 상처를 남겼는가. 이 애가 왜 제 나이를 부끄러워하며 이런 말을 하겠소.… 삼돌아, 너는 그래도 학교로 가야 한다. 학교로 가지 않으면 안돼.》

장군님께서는 따뜻한 손길로 삼돌이의 등을 가벼이 미시며 함께 차에 오르시었다.

승용차는 농촌마을의 좁은 길로 미끄러지듯 달리기 시작하였다.

따스한 봄별이 차창으로 흘러들었다.

통통한 버들개지들이 길가 버드나무가지에 노랗게 피어올랐다.

푸릿한 산밭이 운무속에 가리워 아득히 멀어보이는 벌끝에 아지랑이가 손짓하듯 아물거리고있었다.

장군님께서는 자리에 깊숙이 몸을 기대시고 조용히 눈을 감고계시었다. 운전사아저씨는 차를 조심조심 몰았다. 삼돌이와 삼녀도 장군님곁에서 숨소리를 죽이였다.

삼녀가 갑자기 오빠의 무릎을 건드리며 《오빠, 교장선생님…》 하고 소곤거렸다.

교장선생의 모습은 차앞으로 점점 가까와졌다.

장군님께서는 차를 세우시고 교장선생과 인사를 나누시었다. 뜻밖에 장군님을 뵈우게 된 교장선생은 놀랍고 감격한 마음을 견잡지 못해하였다.

《교장선생님, 어디로 그렇게 바쁜 길을 걸옵니까?》

《저… 한 학생의 가정방문을 가던 길입니다.》

《결석한 학생이 있습니까?》

장군님께서는 근심스러운 어조로 물으셨다.

《예, 저… 이틀째나…》

교장선생은 그만 놀라움에 차서 눈이 커지며 말끝을 채 마무리지 못하였다.

차안에 가지런히 앉아있는 삼돌이와 삼녀가 눈에 띄웠기때문이였다.

교장선생의 눈과 마주치자 두 아이는 머리를 아래로 떨구었다.

장군님께서는 크게 웃으시였다.

《교장선생님은 혹시 삼돌이를 만나러 가는 길이 아닙니까?... 마침 잘되었습니다. 함께 학교로 갑시다.》

교장선생이 장군님의 뒤를 따라 차에 오르자 삼돌이와 삼녀는 목을 더 움츠리였다.

차는 다시 달리기 시작하였다.

차창밖으로는 살진 황소들이 보습을 끄는 논밭이 훤히 지나갔다.

《삼돌이는 자기가 아파서 학교에 못 간다고 했는데 내가 알아보니 이 애는 앓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그만두려 하고있습니

다.》

장군님의 말씀에 교장선생은 놀라는 눈길을 아이들한테로 돌리였다.

삼녀는 울먹거리며 말씀을 드렸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빠가 앓는다고…》

교장선생은 울고있는 삼녀한테서 눈길을 천천히 떼더니 버릇처럼 안경테를 몇번이고 추슬리였다.

《장군님, 잘못된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삼돌이를 3학년애 올려놓지만 앓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것입니다.》

《교장선생의 잘못이 아닙니다. 열네살 먹은 아이가 조그만 1학년애들속에 끼여있는 것이 보기가 안돼서 그런것이 아닙니까?》

장군님께서는 교장선생을 위로하듯 부드럽게 바라보시였다.

《예, 삼돌이가 너무 부끄러워해서 제가 그만…》 하고 교장선생은 그를 3학년애 올려놓던 일을 말씀올렸다.

…체조시간이였다. 아이들은 두편으로 갈라서 달리기를 하였다. 삼돌이와 함께 뛰게 된 저쪽편 아이는 앞이가 두대나 빠진 꼬마였다.

삼돌이네 편 아이들은 벌써부터 좋아라고 모자를 올려던지며 깡충깡충 뛰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삼돌이가 꼬마한테 지고말았다. 꼬마는 아저씨같은 삼돌이를 당해낼수 없게 되자 재빨리 그의 팔소매를 꼭 붙잡았다. 그렇지만 삼돌이는 그 애를 차마 뿌리치고 달아날수 없었다. 삼돌이는 재간없이 슬그머니 뒤떨어져 그 애뒤에서 슬렁슬렁 뛰었다. 꼬마는 그냥 앞서겠다고 한팔을 바람개비처럼 마구 돌리며 뛰었다.

《삼돌이형때문에 우리가 졌어.》

《정말 시시하다.》

《삼돌이형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어.》

《선생님, 삼돌이형을 다른 반에 보내십시오.》 하고 아이들은 삼돌이를 둘러싸고 별떼처럼 고아댔다.

5학년아이들이 창문에 몸을 쭉 내밀고 운동장을 내다보며 하하 웃어댔다.

삼돌이는 그날 교장선생을 찾아가서 자기를 높은 반에 올려놓아달라고 떼를 썼다....

《음, 그래서 삼돌이가 3학년생이 되었구만.》

교장선생의 이야기를 다 듣고나신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공부가 팔려도 애를 먹습니다. 며칠전에 시험때문에 학급에서 얼굴을 서로 붉히는 일까지 벌어졌었습니다.》

삼돌이는 시험지말이 나오자 그만 속이 한줌만 해서 구석을 찾았다. 삼녀도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갱게 달아올랐다....

《삼녀학생, 5점입니다.》

《김명남, 5점입니다.》

선생은 이렇게 한 아이, 한 아이 이름을 부르며 시험지를 내주었다.

드디어 선생이 삼돌이의 이름을 불렀다. 삼돌이는 《예.》 하고 대답하고 얼굴이 벌개지며 교탁앞에 나갔다. 그런데 선생은 웬 일인지 삼돌이의 점수는 불러주지 않고 시험지만 내주었다. 삼돌이는 그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비좁은 책상줄사이를 바삐 걸어서

맨뒤에 있는 자기 자리에 돌아와앉았다.

《몇점이니?》

옆에 앉은 아이가 얼굴을 돌리며 가만히 물었다. 삼돌이는 비밀인듯 아무 대답도 안하고 시험지를 책상안에 쑥 집어넣었다. 그런데 삼돌이가 그 시험지를 잘 감추지 못해서 인차 아이들의 눈에 드러나고말았다.

공부가 끝난 다음 삼돌이가 잠시 밖에 나간 사이에 아까 점수를 묻던 애가 책짤에서 그 시험지를 끄집어냈던것이다.

《애들아, 이것 봐라. 삼돌이 시험지엔 점수가 없어. 빈털터리야. 근데 여기 무슨 글이 있다. 옳지, 선생님이 써놓은 글이야. 응, 내가 읽을게. <삼돌학생은 공부를 끝낸 다음 교원실로 오세요.>》

그 애가 이렇게 다 읽자 시험지는 바람에 불려다니듯 이 손에서 저 손으로 빙빙 돌아갔다.

삼녀는 두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손은 너무나도 작았다.

그는 책상밑에라도 기여들어가고싶은 마음이였다.

그런데 아이들은 장난에만 눈이 팔려 삼녀를 보지 못하였다. 한 아이는 히죽 웃으며 시험지에 어른들의 주먹만 한 동그라미를 척 그려놓기까지 하였다.

《애들아, 이제는 삼돌이 점수가 최고다. 봐라, 닭알이야.》

그는 결상우에 올라서서 시험지를 흔들었다. 아이들이 와— 하고 웃어댈 때 삼녀가 더는 참지 못하고 수닭뿔처럼 얼굴이 새빨갱게 성이 나서 그 애앞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조금만 다쳐도 울음이 터질듯 입술을 파들파들 떨었다.

《우리 오빠 시험지를 가져와, 당장 가져와!》

그저 얌전하기만 하던 삼녀였다. 아이들이 삼녀를 잘못 보았다. 삼녀는 돌맹이처럼 부르짖 자기의 주먹이 작기는 했지만 오빠를 위해서는 조금도 아끼지 않을 잡도린듯 눈이 가시처럼 되어 쏘아보았다.

장난이 세찬 그 애는 삼너한테 기가 질렸던지 머리를 긁으며 결상에서 슬그머니 내려섰다. 삼너는 그 애한테서 시험지를 가로챘다. 그래가지고는 주먹안에 막 뭉그려 동그렇게 된것을 그 애 얼굴에 쥐어뿌렸다.

그는 자리에 돌아가서 영영 울었다.

그때 마침 삼돌이가 교실에 나타났다.

삼너는 오빠가 눈에 띄자 《1학년에 도로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하고 소리치고는 팔에 얼굴을 묻고 더 크게 울었다. 삼돌이는 낮이 수수떡처럼 되었다. 그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자기의 시험지가 아이들의 장난거리가 되고 동생을 저렇게 눈물투성이로 만들었다는것을 잘 알았다. 삼돌이는 바지주머니에 손을 쑥 집어넣고는 교실에서 슬며시 나가버리고말았다....

교장선생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 차안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장군님께서서는 자리에 몸을 기대시고 차창 밖을 이윽히 내다보고계시였다.

《학교에 삼돌이 같은 애들이 몇이나 됩니까?》

장군님께서서는 여전히 차창에서 시선을 떼지 않으신채 물으시였다.

교장선생은 본래는 열둘이었는데 절반은 학교에서 떨어져나가고 지금 여섯명만 남아있다고 대답올렸다.

장군님께서서는 교장선생의 말을 한참 되짚어보시듯 말씀이 없으시였다.

《교장선생님, 우리가 이 애들의 공부문제를 하루빨리 풀어주어야 하겠습니까. 며칠전에 어느 공장에 갔을 때도 거기에 삼돌이 같은 아이가 있었는데... 아마 그 애도 지금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있을게요. 그래 교장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돌이를 어떻게 공부시켰으면 좋을것 같습니까?》

교장선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기의 결심을 말씀올렸다.

《장군님, 삼돌이를 1학년에 다시 공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체조시간보다도 팔리는 공부가 삼돌이를 더 부끄럽게 하고

학교가 싫어나게 한것 같습니다.》

《허허... 1학년이라...》

그러시며 장군님께서서는 삼돌이를 굽어보시였다. 삼돌이는 눈길을 떨군채 몸을 조금 움직였다.

《네, 그렇습니다. 삼돌이는 1학년 공부를 잘했습니다. 삼돌이는 1학년에 최우등을 했을텐데 제가 그만...》

교장선생이 뉘우치는 어조로 말씀올렸다. 장군님의 그윽하신 눈빛에는 생각이 더욱 깊어지시였다.

승용차는 어느덧 아담한 학교운동장에 와서 멎어섰다.

방금 수업이 시작된듯 교실마다에서는 글소리가 랑랑하게 울려나오고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차안에서 내리신 장군님께서서는 《삼너야, 빨리 교실로 가거라. 시간이 좀 늦어진것 같구나.》 하시며 등을 가벼이 밀어주시였다.

《학교를 잘 꾸렸습니다. 체육기자재를 많이 갖추셨구만.》

두손으로 허리를 짚으신 장군님께서서는 만족하신 표정으로 운동장을 둘러보시였다.

《이제는 삼돌이도 이 운동장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뛰게 해줍시다.》

장군님께서서는 삼돌이의 손을 잡으시고 운동장을 지나 현관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교장선생은 기쁨을 금할수 없었다.

《이 꽃밭은 삼돌이가 도맡아가지고 가꾸었습니다. 울타리도 이 애의 솜씨랍니다.》

새하얀 회칠까지 산뜻하게 한 키낮은 살창울타리로 에둘러친 교실앞 꽃밭은 감자심은 터밭과 꼭 마찬가지로 삼돌이의 부지런한 손탁과 산뜻한 마음씨를 한껏 자랑하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아담한 꽃밭과 삼돌이를 번갈아보시며 흐뭇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그때였다.

교문으로 리위원장아저씨와 삼돌이 아버지가 허둥지둥 달려들어오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현관층계에 오르다말고 교문쪽에 시선을 보내시였다.

순간 삼돌이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장군님께서서는 리위원장과 삼돌이 아버지가 올리는 인사를 받으시고 너그러운 웃음을 지으시였다.

《봄씨불임이 잘돼갑니까?…》

《예! 농민들이 일에서 도무지 피곤을 모르고 밤에 낮을 이어가며 농사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분여받은 땅에 첫해농사를 본때있게 지어보자고 열성들이 대단합니다.》

리위원장아저씨가 대답올리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반가운 웃음을 지으시였다.

《그렇것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면서 쌓인 숙망이 풀렸으니 무척 기뻐할것입니다. 이제 학교에서 일을 보고 같이 포전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삼돌이 아버지가 황송한 마음을 견잡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올렸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장군님께서 3대머슴 저희들에게 땅을 주시구 아이들에게 학교문도 짝 열어주셨는데도 자식 하나 건사를 변변히 하지 못하여 장군님께 이런 걱정을 끼치구 또 바쁘신 나라일에…》

뒤말을 더 잊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삼돌이 아버지의 터실터실한 두손을 잡아주시며 부드러운 말씀으로 송구해하는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시였다.

《원,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삼돌이는 이렇게 책보를 끼고 학교로 공부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공부를 잘할겁니다. 왔던김에 이 애가 공부할 교실로 마저 데려다 줍시다.》

장군님께서서는 삼돌이를 앞세우고 다시 계단으로 오르시여 현관에 들어서시였다.

《장군님, 1학년교실은 저쪽에 있습니다.》

교장선생이 복도에 들어서자 이렇게 말씀을 올렸다.

장군님께서서는 자애롭게 웃으시며 삼돌이한테 몸을 낮추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래, 네 생각은 어떠냐? 1학년교실로 가볼가?》

삼돌이는 대답대신 고개를 떨구고 발끝을 꼬지락거렸다.

장군님께서서는 허리를 펴시며 유쾌하게 웃으시였다.

《교장선생님, 이 애가 대답하지 않는 걸 보니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허허…》

그때 삼돌이 아버지의 마음은 부글부글 괴어올랐다.

(저녀석이 왜 저리도 미웁할가.… 3학년에서 락제생으로 몰릴바에야 1학년에서 최우등을 하는게 낫지.…)

삼돌이 아버지는 장군님앞이라 욱욱 치미는 분을 참고 나직이 아들을 불렀다.

《애, 삼돌아.》

삼돌이는 낮을 찌프리며 아버지를 힐끔 눈귀로 쳐다봤을뿐 여전히 움짱 안하고 그 자리에 서있었다. 삼돌이 아버지는 더욱 당황하여 어쩔바를 모르며 장군님께 말씀을 올렸다.

《장군님, 죄송합니다. 제가 버릇을 잘못 굳혀주어 말을 통 듣지 않습니다. 잘 타일러 1학년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알릴락말락하게 고개를 저으며 웃으시더니 삼돌이 어깨에 손을 얹으시였다.

《고집이 세다? 아이들의 고집이라 해서 무턱대고 탓할수는 없지요.… 내 보기에는 삼돌이 아버지나 우리가 저 애의 마음을 미처 알아주지 못한것 같습니다.》

저 애 마음은 1학년에서 떠나 벌써 3학년을 지나 더 높은 학년에 가있습니다.

공부는 힘으로 하는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것입니다.》

장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삼돌이는 머리를 번쩍 들었다.

그의 두눈에는 금시 기쁨의 빛이 확 피어올랐다.

(아, 장군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네.

고맙습니다, 장군님!)

장군님께서서는 삼돌이의 손을 잡으시고 북도 저편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제 아들의 마음을 모르고 그저 억박지르기만 하던 일이 자꾸만 눈앞에 밟혀와 머리를 숙인채 삼돌이 아버지는 장군님의 뒤를 따라 교장선생의 곁에서 걸어갔다.

아이들의 랑랑한 글소리가 북도에 짝 차올랐다.

1학년교실은 점점 멀어졌다.

교장선생은 의문이 풀리지 않은채 장군님의 뒤를 말없이 따라왔다.

삼돌이도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어디로 가실까?)

장군님께서서는 5학년교실앞에 이르시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입가에 가벼이 웃음을 그리시였다.

《어때, 삼돌이가 5학년에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니?》

그러시고는 더없이 밝으신 표정으로 삼돌이의 얼굴을 바라보시였다.

삼돌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어 장군님께서서는 교장실쪽으로 걸음을 떼시였다.

삼돌이는 5학년교실앞을 떠났지만 아직도 가슴이 울렁거렸다.

교장실은 자그마한 방이였다.

바른쪽벽 한가운데에는 장군님의 초상화가 높이 모셔져있고 그 맞은편에는 조선지도가 걸려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의자에 앉으시여 교장선생에게 삼돌이의 시험지를 한번 보여줄수 없는가고 말씀하셨다.

교장선생이 그이께 구겨진 흔적이 그대로 보이는 시험지 한장을 드리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이윽도록 그것을 보시다가 손끝으로 책상을 가볍게 도닥이시며 벽에 걸린 조선지도에도 시선을 돌리시였다.

책상에서 울리는 조용한 그 소리는 삼돌이와 같은 온 나라 아이들을 이 방안에 부르는 말씀처럼 정답게 들렸다.

창밖의 나무가지에서 새들이 맑은 소리로 우짚고있었다.

지도에서 시선을 떼신 장군님께서서는 또다시 시험지를 바라보시였다.

《허, 동그라미점수가 굉장히 크군.》

장군님께서서는 그 점수를 지우시듯 구겨진 시험지를 반반하게 찢시였다.

한없이 자애로운 그이의 마음이 시험지를 봄빛처럼 쓰다듬어주시였다.

《교장선생님, 학교에서 떨어져나간 그 애들도 다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야 하겠습니까. 그 애들을 한데 모아 학급을 따로 하나 만듭시다.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 서로 수준이 맞는 사람들로 자습반, 식자반을 만들어 공부를 시켜봤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삼돌아, 너와 같은 아이들끼리 한반에서 공부하는게 좋지?》

장군님의 자애로우신 음성은 마치 귀에 대고 소곤소곤 이야기하시듯 정답게 들렸다.

삼돌이는 눈물을 머금은 눈으로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러보았다.

《장군님!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삼돌이가 기쁨에 넘쳐 대답을 올렸다.

《음, 이젠 철공소에 갈 생각을 다시는 않겠지?》

장군님의 말씀에 온 방안에 웃음이 터졌다.

삼돌이는 대답대신 뒤더수기로 손을 가져가며 아버지를 넌지시 건너다보았다.

그는 히죽이 웃었다.

《음, 됐다, 그렇게 하자. 너희들이 좋다면 다지.… 교장선생님, 이 애들한테 교실을 하나 주어야 하겠습니까.》

《장군님, 제가 이 방을 내겠습니다!》

뒤늦게나마 장군님의 뜻을 깨달은 교장선생도 머리가 숙어지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말씀을 올렸다.

장군님께서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그렇게 합시다. 이제 여름에 가서 새 학교를 하나 짓도록 합시다. 그때까지만 교장선생님이 불편하신대로 지내면 됩니다.》 하

고 말씀하시였다.

리위원장은 감격에 목메여 자리에서 정중히 일어섰다.

《씨불임이 끝나면 인차 학교를 짓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리위원회와 상점을 짓자던 목재로 먼저 학교를 짓겠습니다.》

손재간이 좀 있다고 마을의 목수일에 자주 불려다니는 삼돌이 아버지도 옷깃을 여미고 일어서서 말씀을 올렸다.

《책상과 결상도 아이들의 키에 맞게 새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좋은 생각을 했다고 치하하시며 금년내에 꼭 학교건설공사를 끝내라고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천천히 교장실을 나서시였다.

교사밖에 하얗게 떨쳐나와 만세를 부르는 교직원, 학생들의 우렁찬 환호속에서 장군님께서서는 학교를 떠나시였다.

해방후 첫봄을 맞은 노루풀사람들이 장군님을 기다리고있었다.

×

《선생님, 교장선생님!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옵니다!》

물결레로 교실마루를 닦던 삼돌이는 창턱 밖으로 몸을 내밀고 꽃밭을 향해 소리쳤다.

다급한 웨침소리에 교장선생이 꽃포기앞에서 몸을 일으켰다.

반쯤 기울어진 물뿌리개에서 맑은 물방울들이 푹푹떨어지고있었다.

7월은 그윽한 꽃향기와 울긋불긋한 꽃잎들을 거느리고 삼돌이네 교실창가에 찾아왔다.

벌써 세차레의 휴식시간을 교장선생은 이 꽃밭에 바친다.

전화종소리는 그냥 요란하게 울린다.

교장선생은 결의 아이에게 물뿌리개를 넘겨주고 급히 교사 한가운데 있는 현판쪽으로 뛰어갔다.



교장선생은 까만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노루풀인민학교입니까?》

귀에 익은 자애로운 음성이 진동판을 두드리며 울려왔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교장선생님입니까?》

《그렇습니다, 장군님!》

교장선생은 불시에 몸가짐새를 똑바로 하며 어린애처럼 목소리를 떨었다.

꽃밭에 있던 아이들이 싹싹— 하며 발끝걸음으로 교실에 들어왔다.

장군님의 웅글진 음성은 수화기밖으로 흘러나와 아이들의 귀에도 푹푹히 들렸다.

《교장선생과 헤어진지도 두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까?》

《네, 잘합니다. 지금 진급시험이 한창인데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삼돌이는 어제 산수시험에서 5점을 맞았습니다.》

《5점! 아주 좋은 일입니다.》

…삼돌이가 학급반장이 되었던 말이지... 나도 기쁩니다. 이제는 열두명 아이들이 공부하는 삼돌이네 학급에 이름을 달아줄 때가 되었습니다. 아직 이름을 달지 못했습니까?》

《달지 못했습니다. 뿔이라고 했으면 좋을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립시 〈키큰반〉이라고들 부르고있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그 이름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을겁니다. 그 이름대신에 오늘부터는 〈특별반〉이라고 부르는것이 어떻습니까?》

《장군님! 꼭 마음에 듭니다!》

《교육의 기존방식을 깨뜨리고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놓은 학급이라는 의미에서 〈특별반〉이라고 부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마음에 든다면 좋습니다. 우리는 노루풀인 민학교에 생겨난 이런 특별반을 온 나라의 모든 학교들에 다 내오자고 합니다.》

장군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시였다.

특별반! 특별반!

삼돌이는 가슴속에서 뭉클 치밀어오르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입속으로 가만히 이렇게 불려보았다.

《특별반!》

《특별반!》

《특별반!》

교실 여기저기에서 이런 속살거림들이 들려왔다.

전류소리만 쟁- 흐르던 수화기에서는 다시금 장군님의 음성이 울렸다.

《인제는 모든 아이들이 제 나이에 공부를 빨리 따라잡을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식민지교육의 잔인한 후과에서 아이들을 해방할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해방된 조선에서 우리가 새롭게 내놓은 이 교육방법으로 아이들이 잃어버린 나이 아니, 우리 조선의 잃어버린 나이를 하루빨리 찾아야 하겠습니까. ...》

삼돌이는 한없이 자애로운 사랑이 담긴 장군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구름 한점 없는 창창한 하늘이 조국의 대

지우에 지붕인듯 아득히 비껴있었다. 그 하늘밑에 얼마나 많은 마을들과 아이들이 있으랴!

그것은 조국이였다!

장군님께서는 조국이 잃어버린 나이를 이렇게 다시 찾아주시였다.

다시 찾은 나이-그것은 공장이 하나 복구되고 발전소가 새로 일어서고 파괴된 철길이 다시 이어지는 복구건설의 역사적의의보다 더 거대한것이였다.

이제 그 나이는 우리 조국의 무궁무진한 힘으로 되고 세상을 놀래울 우리 조선의 힘으로, 지혜로 되리라.

이제 그 힘, 그 지혜로 기계를 만들고 오편을 자래우고 비단을 짜고 쇠돌을 찾으며 아름다운 노래와 춤을 낳고 원썩가 덤벼들면 총을 쏘고 땅크를 굴리리라.

한 소년의 애타는 마음에서 세상이 아직 모르는 공부방법을 새롭게 찾아내시여 온 나라에 꽃피워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

마침내 전화를 끝내고 돌아선 교장 선생은 삼돌이를 내려다보며 한동안 말을 못하고 서있더니 이윽고 옷깃을 경건하게 여미였다.

《삼돌학생,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삼돌이가 공부를 잘한다니 참 기쁘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움츠렸던 그 마음이 기를 펴고 배움의 넓은 길로 활개치며 걸어가도록 해야 하겠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삼돌이가 자기 나이대로 중학교에도 들어가게 하고 대학에도 보내여 삼돌학생을 유명한 과학자로 키우자고 하시였습니다.》

《장군님! ...》

삼돌이는 장군님의 품에 안기듯 전화기걸이로 다가서며 목메여 부르짖었다.

심장은 걸잡을수 없이 쿵쿵 높뛰고 눈에서는 행복에 겨운 굵다란 눈물이 주르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주체73(1984)년